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3.24.(금) 배포 즉시	사진	0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팀 장	곽희철 (031-860-1511)				
		담당자	김다경 (031-860-1595)				

## 경기교통공사, 특별교통수단 광역 운영 위한 광폭 행보 나서

- 서울시설공단·양주도시공사 등 기존 특별교통수단<sup>1)</sup>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의 실시
  - 김동연표 교통약자 공약 실현 및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대응
  - 시·군 특별교통수단 광역화 위한 노하우 교류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23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설공단과의 노하우 교류를 위한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를 찾아 서울시의 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배차 콜센터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번 교류는 광역시나 기초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권역별 광역통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예고 등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에 앞선 2022년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에도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 등 경기도에서도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교통공사도 현재 경기도 내 시·군과 연계하여 특별교통수단 관련 접수·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책무를 다하는 중이다.

1)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8호로 정의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일컫음.



논의중인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좌측),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최유철 처장(우측 가운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배차 콜센터 방문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서울특별시의 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서울시설공단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노하우는 특별교통수단 광역화 과업을 앞둔 경기교통공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공약인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광역화 수행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서울시설공단 등 수도권 전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기관간 교류 및 벤처마킹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최유철 처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도간 통합·연계 운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다른 요금·대상 등의 승객 기준 등 행정적 문제나 효율적 배차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 등을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협력하여 수도권 교통약자를 위한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단일체제로 직접 운영하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상이한 운영기준(이용대상·운행지역·이용요금 등)으로 인해 효율성 확보를 위한 통일화가 풀어야 할 과제이자 난관이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21일(화) 양주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양주도시공사를 찾아 현재 시·군 단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광역화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하였고, 29일(수)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방문하는 등 광역화를 위한 경기도 내 시·군 운영기관의 현장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